

“자신만의 믿음을 설계한다면, 나아가 건강까지 설계할 수 있다”

하늘에서 연꽃이 사뿐히 내려앉은 듯 고운 자태와 밝은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그녀는 국립마산병원 내 해운동성당 가포공소의 천복련(千福蓮) 수녀다. 그녀는 지난 ‘제25회 복지대상’에서 인요한 교수와 더불어 나란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받은 상이 못내 씩씩러운 듯 겸손해하는 그를 만나보았다.

해운성당 가포공소의 千福蓮(천복련) 수녀



경남 창원시 가포로에 가면 ‘가포공소’라는 작은 수도회가 있다. 작은자매 관상선 교회 수녀원 소속 수도회인 이곳은 설립된 지 50년이 넘는 동안 영세 결핵 환우들의 자활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곳에서 상주하며 입원 환우들을 돌보는 천복련 수녀는 입원 환우들을 방문 상담하는 등 심리적 안정을 돕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공을 인정받아 이번 복지대상 봉사부문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런 그녀가 씩씩러워한다. 그러면서 던진 말은 수상 패를 가슴에 안음은 순전히 수도원에 동고동락 중인 환우들 덕분이라고. 이들 대부분이 영세민들로 약값을 대려면 한 푼이라도 더 보태줘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

“포상을 받으면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받게 됐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지요.”

천복련 수녀가 이곳과 연을 맺은 지도 벌써 30년. 그간 많은 환자들이 거쳐 갔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제 역량 부족이요, 이르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고 말하는 그녀. 수도회 운영 대부분은 지자체와 주변 사람들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정기적인 후원이 적다 보니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 결국, 언제부턴가 그녀는 다각도로 자금을 모아 보기 위해 애써왔다. 외부 이용 환우들을 대상으로 후원금 마련을 위해 ‘예쁜 글씨(POP) 교육’과 ‘퀵트교실’ 등을 운영한 것이다. 병원 생활에서 오는 무료함을 달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었다.

또한, 근거리 부업거리를 찾아 환우들에게 소개도 해줬다. 그밖에 서류 대행 등 그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까지 하게 됐지만 정작 장소나 주변 인식 등으로 인해 운영이 순조롭진 않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사실은 환자들 대부분이 심리적인 문제로 병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거다. 이런 경우 면담을 통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 보지만, 외부에서 오는 마음 충격이 쉽사리 가질 리 만무하다.

그런 환우들에게 천복련 수녀는 새해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고 전한다. 바로 자신만의 삶의 활력소를 만드는 것이다. 그녀의 경우 오랜 기도생활(피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고! 환우들 또한 자신만의 믿음을 설계하고 나아가 건강까지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도움의 손길을 전해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바람이라면 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환우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환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보람찬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뒤에서 조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2014년 이곳 가포공소를 더욱 밝고 커다랗게 비출 그날을 기대해본다. †